

구역:

이름:

<p>1월 29 월요일</p>	<p>레위기 1장-5장 □ (핵심장 1장) □</p>	<p>* <b>구약의 제사:</b> 레위기를 펼치면 처음에는 비슷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듯 보입니다. 특히 1장부터 5장까지는 '내가 잘못 읽었나?' 싶을 정도로 내용이 유사합니다. 레위기의 첫 다섯 장은 구약시대 제사를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들은 기본적으로 피가 필요한 제사였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짐승을 잡아서 손질한 다음, 내장을 제거하고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린 후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만이 곡식 가루로 빵을 빚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레위기의 첫 다섯 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러한 복잡하고 번거로운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p>
<p>문제</p>	<p>“제사장 (                    )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여 놓고”</p>	
<p>1월 30 화요일</p>	<p>레위기 6장-10장 □ (핵심장 9장) □</p>	<p>* <b>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려면:</b> 구약성경의 다섯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중요한 제사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제사장 위임식 때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이들 역시 인간이라서 자신의 죄를 사하는 속죄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세밀하게 마련된 규정을 따라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이 세워졌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는 다른 불로 향을 피워 가져왔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과 방법대로 예배해야 합니다.</p>
<p>문제</p>	<p>“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                    )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p>	
<p>1월 31 수요일</p>	<p>레위기 11장-15장 □ (핵심장 14장) □</p>	<p>* <b>공동체의 정결을 위한 규정:</b> 제사법 말고도 세세한 규정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규정을 잘 지켜서 정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나누셨고(11장), 출산하고 나서 해야 할 일(12장)과 피부병이나 가정 위생(13장), 각종 유출병(15장)에 관한 규정을 알려 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정해진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시 정결해져서 공동체에 복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도 있었습니다(14장).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규정들의 목적이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p>
<p>문제</p>	<p>“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                    )를 머물 것이요”</p>	

<p>2 월 <b>1</b> 목요일</p>	<p>레위기 16 장-20 장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16 장) <input type="checkbox"/></p>	<p>* <b>영적 정결을 위한 규정:</b> 외부로 드러나는 정결을 유지하는 규정도 있었지만, 영적 정결을 위한 규정도 있었습니다. 16 장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사하는 속죄일 규정을 마련하셨습니다. 속죄일에 희생되는 숫염소 두 마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영적 정결을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당시 주변에 널리 퍼져 있던 여러 음란한 풍습을 금지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영적 정결은 매년 되풀이되는 대속죄일을 통해 한시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p>
<p>문제</p>	<p>“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                    )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p>	
<p>2 월 <b>2</b> 금요일</p>	<p>레위기 21 장-25 장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23 장) <input type="checkbox"/></p>	<p>* <b>구약의 절기:</b> 여러 제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면, 각종 절기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구약시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속죄일, 초막절 등이 있습니다. 절기는 아니었으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식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듯이 이스라엘도 안식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7 년마다 안식년을 가지고, 일곱 번째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는 희년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 절기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통해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음을 배웠으며, 감사와 기쁨을 회복했습니다.</p>
<p>문제</p>	<p>“모세는 이와 같이 (                    )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p>	
<p>2 월 <b>3</b> 토요일</p>	<p>레위기 26 장-27 장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26 장) <input type="checkbox"/></p>	<p>* <b>준비된 하나님 백성으로:</b> 레위기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가진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섬기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주께 드리는 예물에 관한 규정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처럼 레위기에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원칙들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p>
<p>문제</p>	<p>“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                    )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p>	

- 매일 스케줄에 따라 성경을 읽으시면서 box 에 체크를 해 주시고 (시간이 부족하실 때는 핵심장), 본당 안내석과 친교실에 준비된 성경문답지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